

# 가상공간서 만나는 ‘현대 모빌리티 어드벤처’ 세계 첫 공개

‘로블록스’에 가상의 테마파크 오픈  
현대차 모빌리티 체험 시범 서비스  
내달 정식 오픈시 에코 포레스트 추가

현대자동차가 젊은층과 소통 강화를 위해 가상 고객경험 공간 ‘현대 모빌리티 어드벤처’를 글로벌 최초로 공개했다.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에 현대차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상의 테마파크를 오픈한 것이다.

현대차는 1일 글로벌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에서 현대차 모빌리티를 체험할 수 있는 고객 경험 콘텐츠를 시범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가상의 테마파크 ‘현대 모빌리티 어드벤처’에서는 네쏘부터 UAM, PBV, 로보틱스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경험 가능하다.

로블록스는 하루 평균 약 4320만명의 이용자가 즐기는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용자들이 아바타 형태로 가상 세계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MZ세대들의 새로운 소통공간 주목



‘현대 모빌리티 어드벤처’ 메인 이미지

받고 있다.

현대차는 로블록스에 현대 모빌리티 어드벤처를 마련하고 총 5개의 가상 공간을 구현한다. 이날 시범 서비스를 통해 퓨처 모빌리티 시티와 페스티벌 광장을 먼저 공개하고, 오는 10월 정식 오픈 시에는 에코 포레스트를 추가할 예정이다. 연내 레이싱 파크, 스마트 테크 캠퍼스 서비스도 순차 추가된다.

사용자는 가상 세계에서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도심항공교통(UAM),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로보틱스 등 미래 모빌리티를 메타버스 콘텐츠로 미리 체험해볼 수 있다. 시범 서비스 기간에서는 한국어와 영어를 기본 제공한다. 10월 정식 오픈 시에는 스페인어도 추가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고객 친화적인 가상경험 콘텐츠들을 통해 앞으로의 잠재고객인 MZ세대와 소통을 활발히 하면서 동시에



UAM 미니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스카이포트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강화하고 미래 선도적인 기술력을 갖춘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토마스 쉬미에라 현대차 고객경험본부장(부사장)은 “차세대 고객경험 플랫폼 ‘현대 모빌리티 어드벤처’를 활용하여 MZ세대 고객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혁신적인 콘텐츠 제공으로 지속적인 관계 구축 및 현대차의 팬(Fan)층을 확대하겠다”며 “향후에도 신차 출시와 미래

모빌리티 소개 등 다양한 활동들을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6월에도 네이버 제트(NAVER Z)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서 쏘나타 N 라인 시승 기회를 제공하는 등 MZ세대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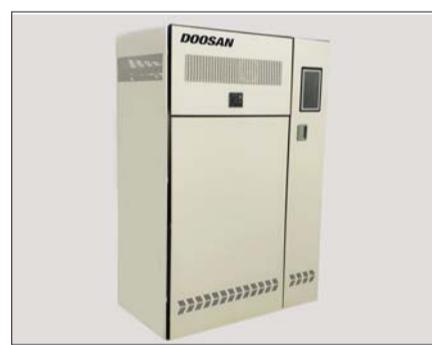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주)두산, 세계 최고수준 발전효율 SOFC 개발

건물·주택용 10kW 고체산화물연료전지  
설치공간 약 50% 이상 절약 가능

(주)두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발전효율을 자랑하는 건물·주택용 10kW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lid Oxide Fuel Cell, SOFC) 개발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제품은 2022년 출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10kW SOFC는 기존 고분자전해질형연료전지(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PEMFC) 제품에 비해 전력 발전효율이 40% 이상 높다. 크기는 기존 시중의 5kW이하급 SOFC 제품들과 비슷해 같은 발전효율을 내면서도 설치공간은 약



10kW 건물용 연료전지

50% 이상 절약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제품은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국내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을 확보해, 국내 부품업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두산 퓨얼셀파워BU 김덕현 BU장은 “내부적으로 테스트한 결과 이번 제품의 전력 발전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면서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할 수 있는 PEMFC 제품과 고효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SOFC 제품을 통해 건물·주택용 연료전지 시장을 리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두산의 건물·주택용 연료전지 사업을 담당하는 퓨얼셀파워BU는 2003년 출범 후 연료전지 핵심기술인 스택 및 개질기 설계, 제작에서부터 시스템 통합 자체 제작까지 전방위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 외국계 완성차, 추석 맞이 프로모션 ‘풍성’

현금 할인·무이자 할부 등 혜택

쌍용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 쉐보레 등 외국계 완성차 3사가 9월 추석을 맞아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들 3사는 현금 할인과 무이자 할부, 노후차 교체 등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으며 내수시장에서 분위기 전환을 노리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9월 출고 고객에게 최대 150만원 할인 또는 6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빠른 출고와 혜택을 제공하는 세일 페스타 해당 모델(티볼리&에어, 코란도)은 차종별로 최대 150만원 할인(일시불)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초기 구입비용이 부담된다면 선수금 20%의 무이자 할부(60개월)와 선수금 없는 0.9% 초저리 60개월 할부도 가능하다.



두고 르노삼성 전 모델들에 다양한 구매 혜택 등을 이어 나간다.

이달 기준 SM6 TCe 260 LE 모델을 택하면, LE 트림 기본 사양에 운전석·동승석 파워 및 통풍 시트, 10.25인치 컬러 TFT LED 클러스터, 긴급제동 보조 및 차간거리 경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이 포함된 RE 트림 차량이 전달된다. SM6 TCe 260 기준에 최대 216만원 가량의 혜택을 제공한다. 정숙한 주행 성능을 가미한 중형 SUV ‘QM6’에도 혜택을 제공해 가솔린 모델 GDe에는 150만원, LPG 모델 LPe에 50만원이 제공된다. /양성운 기자

## 카카오엔터, 멜론과 합병… 통합 개편 단행

3개 주요 사업분야 중심 개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멜론과의 합병 후 조직을 개편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멜론컴퍼니와의 합병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1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페이지컴퍼니, M컴퍼니, 멜론컴퍼니 3개의 CIC(사내 독립 기업) 체제에서 벗어나 스토리, 뮤직, 미디어 등 3개의 주요 사업 분야를 중심 축으로 통합 개편을 단행한다.

카카오엔터의 스토리 부문은 최근 국내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 두 개의 플랫폼이 쌍끌이 하며 국내 사업을 강하게 견인할 예정이다. 카카오웹툰은 지난달 론칭과 함께 국내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국내보다 앞서 론칭한 태국에서도 카카오웹툰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엔터는 이렇게 쌍 아울린 글로벌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내 유럽과 중국권과 아세안 등으로 발을 넓혀 한국 스토리 IP(지식재산권) 세계 시장 진출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카카오엔터는 국내의 우수한 오리지널 IP들을 고품질 번역 및 현지화 작업을 거쳐 타파스와 래디쉬에 공급 확대 한다. 동시에 북미 현지 오리지널 IP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M&A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며 외연 확장과 내실을 함께 기할 계획이다.

뮤직 부문에선 이번에 합병한 멜론과 기존 M컴퍼니의 사업을 결합해 시너지를 본격화한다. 카카오엔터는 스타쉽, 플레이엠, 플렉스엠, 크래커 등 산하 레이블을 비롯해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연간 1만 2000곡의 음원을 기획, 제작하며, 총 7만여 곡의 음원 유통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다.

/강준혁 기자 junhyuk@

## 르노삼성, 임단협 잠정 합의안 도출

기본급 동결 보상금 200만원 포함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타결하지 못했던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발씩 양보하며 잠정 합의안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르노삼성 노사는 8월 31일 오후 13차 교섭을 열고 2020년, 2021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지난 25일 오후 임단협 교섭을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으나 이날 양측이 조금씩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잠정 합의안의 내용은 기본급 동

결 보상금 200만원을 포함해 일시 보상금 총 830만원(현금 800만원 및 비즈포인트 30만원) 지급, 2022년 연말까지 매분기 15만원씩 한시적 노사화합수당 지급, TCF(Trim/Chassis/Final) 수당 신설, 라인 수당 인상 및 등급 재조정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잠정 합의안이 9월 3일 예정된 시원총회에서 최종 타결될 경우 르노삼성은 그동안 장기간의 노시간 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XM3 유럽 수출 차량의 원활한 공급 대응과 유럽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